

지난 30년간 고난 후에 축복하신 주님이 작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1992년 이 나라의 7년간 내전때 교회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수가 있었고 교회는 부흥을 했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에 교회에 대한 폭탄 테러로 10명의 성도가 죽고 백여명의 성도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후 일년간 집중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일년 후에 아프카니스탄 사역의 문이 열리고 아프카니스탄에 많은 사역을 하며 아프카니스탄의 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아직 20년째 아프카니스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교회 건물에 대한 7년간의 법정싸움을 했고 재판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2009년 교회건물을 빼앗기게 되었고 2009년부터 10년간 중국사역을 통해 20개 도시에서 100여번의 집회를 했고 수많은 중국성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전하며 성령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목숨이 살아났고 지난 일년간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 기도하며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 주님이 올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며 흥분이됩니다.

지난 30년간 고난 후에 축복하신 주님이 작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올해에 주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더욱 사역과 기도에 힘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동역자님도 더욱 힘써 천국을 침노하시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산배 최윤섭선교사--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브라질 AFA에는 29명의 캔디와 54명의 팀 멤버가 참석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가 움츠리고 있을때에 저희가 TD(AFA)를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안되는 상황이지만 마음가운데 믿음은 해야 한다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민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요 11장 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 말씀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팬데믹 어려움 상황에서 이성적인 반응을 하기 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였고, 주위에 동역하는 목회자들에게 AFA 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한 줄기의 빛을 보고 응답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고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이 나라에 각 시의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차 Pandemic 파도가 왔다고 쇼핑들이 시간제한을 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AFA 사역에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보우메 목사님의 어머니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AFA를 시작하기 두 주전 일이었는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꼭 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조금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신 말씀이 있어서 믿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참석 하셔서 할 일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AFA에는 29명의 캔디와 54명의 팀 멤버가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80%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두려운 눈빛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고, 멀리 하던 사람들을 점점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AFA의 메시지 내용처럼 점점 불신의 옷을 벗음과 같았습니다. 결국 끝나갈 때에는 단 한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얼굴에는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별 기도 시간에 한 팀에서 귀신이 다녀서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목회자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두 명의 수술 환자도 참석을 하였는데 한 분은 높은 자리에 위치한 까펠라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갔고 한 분은 돌아가자마자 교제를 신청하며 다음번에 꼭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팀 멤버들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각 파트별로 나뉘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천국 백성들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팀 멤버들이 은혜를 받아야 분위기도 살고 자신들도 영적인 회복이 되기에 미리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와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본부 교회가 있어서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서 한 인증, 선희 선교사--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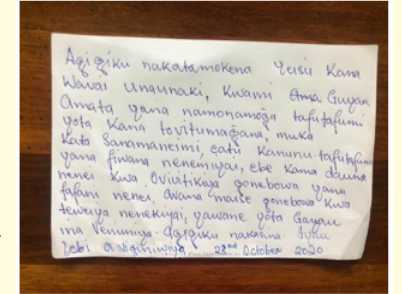
2021년 1월 10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그가 재물을 흠여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시편 112:9)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성경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레비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 나눔을 해주신 한기홍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파푸아뉴기니 굿이너프라는 작은 섬에 살고 있는 현지인 성경 번역자 레비가 보낸 감사의 편지를 전해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신이 번역했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레비는 몇 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편지를 육지인 알로타우에서 17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도착하는 외딴 작은 섬, 그 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고, 4년 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미니 성경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레비를 신실한 현지인 성경 번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카니누와 부족에게 지난 한 해 동안 가뭄과 홍수와 사이클론이 겹쳐서 집도 날아가고, 망고 나무도 쓰러지고, 바나나 나무도 꺾이고, 밭에 심어 놓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먹을거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마을 사람들은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기를 더욱 더 힘쓰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는 조상들과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늘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서 성경의 역사하심에 따라 눈이 열리고 심령에 변화를 받아 재난 중에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복 나눔을 통해 감사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부족을 섬겨야할지 주님께 여쭈었을 때 몇 년 전 언어 자문 사역을 했던 카니누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행복 나눔 헌금으로 쌀을 사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적들을 피해 마을로 쌀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을에서 누군가가 알로타우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고 두 달 정도 후에 레비를 나오게 해주었고, 쉽게 구할 수 없는 화물선도 기적같이 구하게 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에 길을 여시는 주님, 바닷길이 가장 안전한 때에 쌀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안전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SIL에서 필요로 하는 Travel Safety & Security와 Creating Healthy Communities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선교사의 신변 안전과 선교사와 현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선교사들 간의 건강한 공동체, 성경번역을 하기 위해 모은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SIL센터와 마을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일들과 접목시키고, 사역 전반에 대해 재점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운용 선교사는 현지인 성경번역자들에게 언어학을 가르치는 사역과 선교사들에게 언어 자문을 해 주는 사역 외에 문서 보관 사역을 하는데, 문서 보관 사역은 성경 번역 선교사가 성경 번역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도 다음 선교사가 활용할 수 있고, 선교사의 도움 없이 현지인들이 성경번역을 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성경이 완역이 되어있어도 재번역이 필요할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프린팅하여 보관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 REAP(Repository for Electronic Archiving and Publishing) 훈련을 온라인으로 받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비스마르크해(Bismarck Sea)에 위치한 우볼루와 아우아 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볼루(Wuvulu)어를 FiekdWorks Language Explorer를 통해서 문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언어는 Oceanic language에 들어가며,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의 일부 분으로 접사처럼 사용되는 다포합어(polysynthetic language, 多抱合語)의 언어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호주와 인접 국가에서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하는 조상의 언어에 관한 논문들과 재구성된 단어 목록을 기반으로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조상의 언어와 현재 파푸아뉴기니에서 약 890개로 분화된 언어 사이에 어휘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성경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의 형제자매가 되어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합니다.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저이머시 (예수만세!!)

햇띠슈레에는 다행히 코로나확진자 거의 없고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 자동 자가격리 되어 정부에서도 학생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하여 카투만두를 제외한 지방 몇몇 국공립 사업 모든 학교들을 오픈하도록 허가해 주어서 9개월만에 드디어 한빛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40여명의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나왔고, 1-2학년을 새로 더해서 40명이 입학했습니다. 다시 시작한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새로운 교실에서 80여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늘어나서 교사 3명과 관리인 1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아직 운영비가 넉넉치 않아 한빛학교를 위한 재정과 중보기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한 네팔대사관에서도 다시 네팔에 입국하기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자 주는 업무를 시작했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항공사 연결만 잘 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나 아직도 네팔 하루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 안전하지는 않는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네팔인/ 생활고에 자살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후송해 오려고 다시 입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입국하려는 자는 3일 이내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증과 7일 자가격리할 호텔에 자비로 숙박하고, 5천불 이상의 치료비 혜택이 되는 코로나19 관련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영문 확인서를 지참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햇띠슈레 비손교회도 다시 주일학교 예배와 어른예배도 대면예배로 시작하지 1달이 되어 갑니다. 마스크도 쓰지않고 교회에 오고 간다는데, 아직도 감염과 위생 개념이 없어서 주의를 주어도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아 걱정입니다. 요즘 햇띠슈레에도 겨울이 와서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고 추워서 따뜻한 담요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탄 예배를 기대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이번해에는 식사나눔은 하지 않고 런치박스 선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2021년 1월11일 유방 종양 제거 수술을 4번째 또 다시 해야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갑상선과 유방에 자주 양성종양이 생기는 체질을 고쳐주시기를기도해 주세요. 위 내시경과 각종 검사들을 다시 하기로 해서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 밀착 추적검사 중인데 갑상선 수술하지 않고 치료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세요. 순적하게 정리되면 2021년 2월 초나 중순쯤에는 네팔에 다시 들어가려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네요... 오래 있을수록 편안함과 안일해지는 마음으로 헤이 해 질 수 있는데,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더욱 담대히 지혜롭게 잘 준비해 나가려 합니다. 물질로 기도도 중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팔박경희 올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세상에 전하면서 “성탄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이제 나타낼것이라. 너희가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43:19)살롬!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세상에 전하면서 “성탄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 하는 해가되기를 기도합니다.

- 1.저희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2021년 에는 주님이 저희가족에게 새일을 행하시는 한해가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 3.1월 중순경 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비지니스 비자를 잘 받을수있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인도 정희중, 전문희선교사--



전혀 예상할 수 없이 보낸 올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라디오에서는 캐롤송이 흘러 나오네요.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셨죠?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과 소금학교에서 새로운 학생들과 재밌게 생활하던 중, 4월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왼쪽 다리, 그 어떤 방법으로도 통증이 멈추지 않기에 네팔 병원에서 무작정 시작한 항암치료, 그리고 특별기로 한국에 도착했고 자가격리중 패혈증으로 요단강을 반쯤 건넜던 6월, 패혈증으로 한 고비를 넘기니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고 차라리 죽는것이 훨씬 좋은 2번의 항암치료. 골수이식을 거부하며 어찌해도 죽을 저였기에 "주님~ 알아서 하시죠" 불멘 고백을 해야 했고,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소망이 전혀 없는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어느 선교사의 고백을 받아 드릴수 밖에 없는 자아가 포기된 9월이었습니다. 제 항암치료는 반응을 시작했고 10월에는 온 몸에 퍼진 암세포들이 엉덩이 쪽에서만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 6번째 항암을 마쳤고 12월 7일은 몸 전체를 다시 검사하자고 하네요.

저희에게는 정말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께 11월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1주일만에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심에 이별의 떠난 자리가 너무도 커 뺨 돌린 아픈 가슴이네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정부의 대면 수업 중단으로 기록사에서 기거하며 수업을 이어 갔는데 책임을 지고 있던 제가 한국으로 나오니 아이들은 6월말 각자의 집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함은 여름 홍수로 식당과 교실의 축대가 무너졌지만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섬김과 사역속에 일천 오백만원을 들여 다시 축대를 쌓아가고 있으며, 또 코로나로 모든 음식이 동이난 마을 사람들 30 가정에 부식을 함께 나눌수 있었음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계속 선교하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의 치료를 의해서 밤낮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섬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헌신을 다해 섬겨주신 네팔 어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학교와 네팔의 상황들에 조금은 암울하지만 참새 한마리도 아버지의 허락없이 떨어지지 않음은 우리 모두가 그 분의 은혜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팔 이예신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첼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받았습니다 잘회복되고 완치될수있도록 주님의치유의손길을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2. 터키양창모 선교사님이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3. 터키 최지섭 이해영선교사-조직검사 결과 왼쪽 엉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4. 네팔 이예신 선교사--10월말에 5차항암전PET CT에서암세포들이엉덩이부분에만남아있다고합니다 11월21일부터6차항암을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가운데 주님의금홍의 손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